잘가르치는대학
ACE EWHA WOMANS UNIVERSITY

2018 하계 이화봉사단 해외교육봉사

(Ewha Friends in Cambodia)

캄보디아 프놈펜

- 이화사회복지센터

2018. 7

고*영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인터넷의 여러 글들을 통해 여러 봉사단이 해외 봉사를 간다는 것을 알았다. 입학하게 된다면 나도 봉사단의 한 일원이 되어서 봉사를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입학 후 이화 Home 어플 알람을 통해 해외봉사단 모집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잠시의 고민도 없이 바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면접을 보고 나서는 1학년이고 아직 봉사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합격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운 좋게 합격하고 진정한 봉사팀이 되었다. 봉사 준비는 어떤 것 하나도 대충한 것이 없었는데 내가 속했던 기획팀에서는 봉사 준비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받으면 좋아할지 계속 고민하였고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서로 피드백하는 과정을 오래 거쳤다.

주제를 '오감'으로 정하고 나니 각 수업 일자별로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수월하게 정할 수 있었다. 그 후 수업 요일 팀을 또 나누어서 교안 작성을 시작했다. 프로그램 기획이랑 교안 작성과 수정에 있어서 기획팀장인 효원 언니가 모두를 대신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 기획팀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언니가 도맡아 하는 모습 정말 멋있었고 본받고 싶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캄보디아로 떠나는 날이 왔고 인천공항에서부터 '로암잭'이라는 춤을 추며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캄보디아에 도착하고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 정도 되었는데 정말 더워서 여기가 진짜 캄보디아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

다음날 오전에는 뚜어슬랭에 가서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오후에는 센터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월요일이 되었고 이제 진짜 아이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센터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센터 밖까지 우리를 마중 나왔고 먼저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해주었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과 미소는 너무 예뻤고 앞으로의 센터에서의 활동을 기대하게 되었다. 나는 첫날 수업 주교사였는데 걱정했던 것과 달리 무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통역 선생님에게 의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은 빛나는 눈으로 수업을 들었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주었다. 다음날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내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주고 나에게 다가와서 이름을 불러주며 먼저 인사해주어 너무 고마웠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수업하면서 아이들의 순수함이 정말 아름다웠고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곳에 온 내가 아이들에게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감동적이었다.

봉사를 가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오자'라는 다짐을 하였다. 하지만 수업 하는 공간은 에어컨도 없어 너무 더웠고 아이들의 체력을 따라 가지 못해 4일차 점심시간에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고 준비실에서 쉬었던 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그래도 그 외의 시간동안은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과 노는 시간만큼은 나도 그 나이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웠고 정말 행복했다. 또 내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랑

똑같은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며 모든 아이들은 다 똑같다는 생각도 했다.

캄보디아 이화 봉사단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나의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대하게 되었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꼭 더 많은 봉사할동을 할 것이다. 지금은 1학년이지만 4학년이 될 때 까지 이화여대 사회봉사팀에서 더 많은 추억과 경험을 쌓고 싶다.

이화봉사단을 위해 정말 많이 힘써주신 진윤경 선생님, 봉사단의 리더로서 많은 고생을 했을 윤지 언니, 그 외 우리 봉사단원들 모두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

권*지 (사회복지학)

이번 봉사를 찬찬히 생각해보면, 어렵고 힘들었던 점들이 더욱 많이 생각나는 것 같다. 봉사 준비 기간도 짧고, 봉사기간도 짧았기에 짧은 시간 동안 더 완벽하게,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 다 함께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의 능력들이 좋은 덕분에 프로그램 기획은 생각보다 빨리 마칠 수 있었고, 프로그램을 하나의 큰 틀로 만들어서 각 활동들을 생각하다보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큰 틀을 정해놓고 세부 활동들을 생각하고, 각 요일 팀에서 직접 시안을 하면서 세부 교안을 작성했기에 모든 단원들의 각자의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아서 좋았다. 그러나 방학 준비 기간은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었다. 물론, 짧은 준비 기간에 비해서 실제 봉사는 매우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캄보디아에 가서도 매일 밤 다음 날 활동을 준비하고, 체크하느라 고생했던 단원들을 생각하면 짧았던 이번 준비 기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리더로서 단원들을 준비기간부터 더욱 격려하고 이끌어야 했었지만, 이화봉사단 활동은 처음이기에 리더로서의 역량이 부족하여 방학 준비 기간에도 더 완벽한 준비를 해내지 못한 것 같고, 그렇기에 미안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함께 드는 것 같다.

덧붙여서, 활동 중에도 학생들은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웃으면서 즐겁게 따라와 주었지만, 활동 진행에 있어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학생들 앞에서 쓰지 말라던 한국어도 서로 틀어진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 계속 사용하는 등, 아쉬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쉬운 생각들은 마지막 날,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시간에 모두 눈 녹듯 사라졌다. 마지막 피드백 시간에, 그 동안은 들을 수 없었던 우리 봉사활동의 대상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이번 봉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웠고, 5일이라는 시간은 선생님들과 공부하기엔 너무 부족했다"라는 의견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실, 이번에 나는 리더이자 1층 수업의 총괄로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총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업의 진행 과정을 모두 익혀야 했고, 진행시간도 신경 써야 했으며, 학생들의 출석부 체크와 함께 보조교사로서의 역할도 하다 보니 활동시간 전에도 중에도 후에도 학생들과 놀거나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 했던 것 같아서 항상 활동이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면 그 아쉬움이 매우 컸었다. 하지만,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이고 감동적인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 그 피드백들이 온전히 나 혼자만을 위한 피드백은 아니라 전체를 위한 피드백이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활동들이 성공적이었음을 전달해주는 내용들이었기에,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달려와서 안겨주는 학생들이 있었기에 결국에는 아쉬움보다는 뿌듯함이 더 크게 남았다. 특히나 앞에서 언급한 학생의 피드백은 그 당시에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였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아서 나는 활동 중에도 그 활동을 즐기기 보다는 감시 및 관리

하기에 바빴는데, 그럼에도 다른 단원들이 제 역할들을 열심히 해주었기에, 학생들이 우리가 기획한 활동들을 즐겁고 재밌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단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또한,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우리의 진행과 활동 내용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렇기에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원들의 팀워크, 협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프로그램 준비부터 실제 활동까지 단원들이 모두 제각각이었다면 이렇게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자신들이 맡은 역할들을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해준, 그리고 항상 서로를 배려해준 단원들에게 가장 큰 고마움이 오래 남는 것 같다.

기*진 (자유전공)

저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쨍쨍한 햇빛, 흙먼지가 날리던 센터 앞 길, 가끔 시원하게 내리던 소나기까지 캄보디아에서의 8일은 아직까지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출국 전 학생문화관 회의실에 모여 우리의 방문만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 같이 모여 수업 주제를 정하고 교안을 작성하고, 수업 시연을 했던 날들까지 모두 기억난다.

나는 첫 날 수업을 맡은 주교사였기 때문에 더 떨리고 긴장되기도 했다. 아이들이 집중을 잘 안하면 어떡하지, 수업 진행이 예상외로 흘러가면 어떡하지 등등 여러 걱정들이 앞섰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같이 수업을 준비했던 언니들과 동생들이 있었기에 든든했고 그런 걱정들도 설렘으로 바꿀 수 있었다. 내 걱정과는 반대로 센터의 아이들은 우리를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오히려 단원들이 먼저 다가가기 전에 아이들은 맑은 눈동자와 예쁜 미소로 우리에게 "쭘므리읍 수어" "안녕하세요" 등 크메르어와 한국어 모두를 사용하며 인사해주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낯섦을 가질 만도 한데 이렇게 밝게 반겨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전에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때 이름표에 적힌 아이들의 이름을 들여다보며 외우려고 노력했고, 나의 이름도 아이들에게 익숙해진 것 같다. 아이들과 가위바위보도 하고, 책도 읽고, 공기놀이도 했는데 그 와중에 나에게 수줍게 다가와 선물이라며 팔에 팔찌를 끼워준 아이들도 두 명이나 있었다.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웠는데 언어가 잘 안통해서 그만큼 표현을 못 해준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캄보디아 봉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국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른 아이들이지만 바디랭귀지와 어설픈 크메르어로도 충분히 감정적인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다.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짓는 표정들, 눈빛 하나 하나, 해줄 수 있는 칭찬들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그것이 어쩌면 수월한 언어 소통보다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말을 안 듣고, 친구들과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해서 미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기에 충분했다. 센터에서의 마지막 수업 날, 우리가 직접 만든 센터에서의 활동 영상들을 보면서 눈물이 난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 같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더욱 떠나기 힘든 마음도 있었다.

한국의 여름이 점점 깊어지고, 더운 날씨가 계속될수록 캄보디아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고 그리움도 깊어지는 것 같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다시 한 번 캄보디아 이화센터에 방문하여 같이 수업했던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애들아, 그때까지 be healthy, be happy, and study hard!

김*연 (간호학부)

캄보디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한, 이화봉사단에 선발된 이후, 처음으로 20명의 팀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첫날에는, 선생님께서 캄보디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작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알려주셨다. 그 이후 우리는 리더 언니를 정하고, 프로그램의 주제를 '오감'으로 선정했다. 그러고 대략 두 달 동안, 팀원들끼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다시 수정하는 등 흥미로운 수업을 하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았다. 출국 일주일 전에는, 매일 모여서 수업을 진행해보고 서로 피드백을 주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꼼꼼히 준비했다. 특히 직전까지 대본을 계속해서 외웠는데, 그때 전공 시험보다 열심히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 후, 6월 30일 토요일,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캄보디아에 도착했다.

처음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모여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비록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들은 입국하는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고 해맑은 미소를 보여주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캄보디아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나는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월요일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월요일이 되니, 다른 주 교사 분들이 수업을 진행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보조교사나 준비물교사로 활동하면서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첫날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쑥스러워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또 그때 내가 말을 걸어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고, 생각처럼 쉽게 친해지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첫날 숙소로 돌아와서, 크메르어의 간단한 회화를 외우려고 노력했다. 또 다음 날부터는 제스쳐를 더 크게 하고, 언어가 다르더라도 말을 되도록 많이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무난하게 화요일이 지나가고, 수요일은 우리 팀이 주 교사로서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날이었다. 전날까지 대본을 다시 확인하고, 시간이 남을 것을 대비하여 간단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까 봐 걱정되었고, 여러 사람 앞에서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수업하니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다른 팀원들이 도와주어서,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니 뿌듯했고, 발표하는 것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조금 생겼다. 또 내가 진정으로 교사라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 후 일주일이 흘러, 우리는 아이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막상 헤어지려 하니, 첫날 수줍게 인사하는 모습부터 꽃을 선물하거나 같이 놀자며 팔을 잡아당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씩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일주일간, 더운 날씨 속에서 많은 학생을 챙기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그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장난을 치면서 보낸 즐거운 순간이 훨씬 많았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고, 다음에 보기 어렵고 나중에 서로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울

컥하기도 했다.

진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보고 싶다. 이렇게 이화봉사단으로서의 활동은 나에게 색다른 경험을 쌓게 해주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내가 평소에 꺼리는 것을 해보도록 용기를 주고, 나의 진정한 흥미를 찾아주었다. 덕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서로 다른 사고를 알아가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나가면서, 나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김*원 (국어국문학)

처음 캄보디아 해외 교육 이화봉사단을 신청하게 된 것은 단순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랬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태로 시작했고, 첫 전체 해외 교육 봉사 오리엔테이션에서 공지된 단원들끼리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캄보디아 사전 조사 숙제는 당황스러웠다. 해외 교육 봉사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혼란스러웠다. 해외 교육 봉사를 마무리한 지금 되돌아봤을 때, 스스로가 안일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려 했음에 부끄러울 따름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캄보디아에서의 봉사뿐만 아니라, 가기 전의 준비, 와서 마무리까지도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물품 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의 물품 준비에서부터, 가서의 물품준비, 도착해서 물품을 정리할 때까지 그리고 동시에 주 교사와 보조교사, 준비물교사로서 숙지할 상항이 많았기에 6월과 7월을 캄보디아 봉사에 전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중에서도, 캄보디아에서의 봉사준비과정과 봉사활동과정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캄보디아에 처음 도착해, 문화 활동 차 먼저 들른 곳은 '뚜어슬랭'이었다. 캄보디아에 오기 전, 단원들끼리 캄보디아의 역사, 문화, 종교, 정치, 기후 등을 조사했었지만, 실제로 본 캄보디아의 모습은 더욱더 텍스트로 조사한 내용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뚜어슬랭' 견학 이후, 센터로 가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는데, 크메르루주 정권 당시 많은 지식인이 학살당했고, 그로 인해 교육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른 국가와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해주셨다. 하지만, 그런데도, 문화적 유산이 잘 보존되어있고, 문화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심과 동시에 봉사자의 태도가 시혜적인 마음에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여성 인권문제였다. 대학에 와, 여성 인권에 관심이 커진 것도 있지만, 그런데도 캄보디아의 여성 문제는 눈에 드러날 정도였다. 첫 수업에서 주 교사로 수업을 할 때, 의아했던 것은 여자아이들의 옷차림이었다. 35도를 웃도는 습한 날씨에 모든 남학생은 짧은 소매의 옷을 입었지만, 모든 여학생은 긴 소매의 옷을 입고 있었다. 첫 오리엔테이션 때 주성아 센터장님께서 이 나라의 여성 인권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여성인 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생리대, 취미 등과 같은 부분들이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쟁취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사실, 캄보디아에 오기 전, '양'성 평등 교육시간에, 남학생들이 한창 성에 민감할 때이니, '섹시'한 옷을 입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다. 이화여대 자체가 여성해방을 목표로 하는 대학임에도 아직 만연한 성차별적 요소를 보며, 나아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이러한 자각을 할 수 있는 발판 자체가 없었다. 가부장제 아래에서, 대부분의 캄보디아 여성들은 보통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캄보디

아 여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화캄보디아사회복지센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젠더,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결합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에, 이화캄보디아사회복지센터에서의 교육은 저소득층 아이들, 특히 더 나아가 소외된 여성들의 교육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 더 나아가, 나에게도 이화봉사단 활동은 국내 여성 인권뿐만 아니라, 국외 여성 인권에 대해 인지하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잡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김*린 (체육과학부)

국내에서 교육 봉사를 하면서 점점 교육봉사에 관심을 가지던 찰나에, 우연히 캄보디아 해외 교육봉사단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하게 되었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해 뽑힌 20명의 단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국내 교육봉사단으로 활동 했던 사람, 봉사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사람 등 기존에 나보다 봉사 경험이 훨씬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봉사 전 준비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캄보디아가 편안한 언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닌 만큼 준비과정이 복잡했다. 한국 봉사단이 단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일이 잦은 ESS의 특성상 우리가 하고자하는 수업이 최근에 아이들이 경험했던 것은 아닌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등 수업 활동 선정부터 많은 것을 고려하여 까다롭게 진행했다. 수업의 주제부터 세부 내용,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종강을 하고 난 다음에 1주일 밖에 시간이 없어서 부랴부랴 빠듯하게 준비해야했던 점이 아쉬웠다. 하지만 기획팀, 기록팀, 물품팀으로 팀을 나누어 각자 해야 하는 역할을 잘 분담하여 모두가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은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었다.

출국을 하고 직접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더운 날씨에 많이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5일 동안 함께 하면서 정말 즐거웠다. 예상외로 아이들은 우리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색해 하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웃어주었고,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며 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처음 크메르어를 외울 때는 완전 처음 접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와 이걸 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아이들과 지내면서 계속 크메르어를 사용하니까 처음 외워갔던 단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크메르어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주교사, 보조교사, 물품교사 등 수업 일차 별로 자신의 역할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던 점도 좋았다. 사실 주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느라 아이들 하나하나를 케어해주기는 힘들다. 이러한 점을 조교사가 커버해주고 다들 수업에 바쁘니까 물품교사는 그 다음 수업의 물품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여러 차례의 수업 시연의 결과로 현장에서 우리의 팀워크는 빛을 보였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점심시간에 서로 피드백을 하여 오후에는 조금 더 완벽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사실 봉사를 다녀오기 전에 '캄보디아'라고 하면 내가 떠올리는 것은 거대한 유적지 앙코르와트 뿐 이었다. 캄보디아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생각에 얽매어있었지만 이번에 내가 공부하며 알게 된 캄보디아는 한국전쟁당시 우리나라에게 원조를 해 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국가였고 오랜 시간 잘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한 나라이다. 또한 현재에는 외국, 특히 중국의 자본이 많이 유입되어 도시인 프놈펜을 위주로 발달되고 있다. 그

때문인지 내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가르친 아이들은 나의 상상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아직은 수도 프놈펜만이 이렇게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미래에는 더 많은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활동에 대해 피드백을 하는 시간에 현지 선생님께서 “내가 어렸을 적에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셨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나의 작은 수고가 이 아이들이 훗날 큰 사람이 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화봉사단 활동은 내가 봉사를 한다는 느낌보다 내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면서 얻은 행복한 시간들과 새로운 경험들이 너무 감사한 활동이었다.

김*원 (사회복지학)

이번 봉사를 통해 가게 된 캄보디아는 나에게 2번째 방문이었다. 2017년 6개월 동안 캄보디아에서 교육봉사를 했었는데 그 기간이 나에게 너무도 행복했기에 다시 재 경험하고 싶어 이화봉사단을 선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들뜬 마음으로 봉사단을 결정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화봉사단은 다른 봉사단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가르칠 수업 내용을 직접 선정하는 것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수업을 하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다 담당해야 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점이 이화봉사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번에 캄보디아의 총선으로 인해 준비기간이 2주에서 1주로 앞당겨지면서 짧은 기간 안에 이 모든 사항들을 다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우려는 우려일 뿐이었다. 20명의 단원들은 모두 팀장의 지휘 아래 각자가 잘할 수 있는 팀에 들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척척해내기 시작했다. 방학 모임동안 하루하루가 다르게 우리는 수업의 완성도를 높여갔고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나갔으며 짬을 내어 크메르어를 공부했고 사소하지만 필요한 사항들도 의논해나갔다. 그렇게 모두가 열심히 일주일을 준비했고 출국 날이 되어 캄보디아로 떠나게 되었다.

일요일에 기관 OT를 끝내고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철저하게 준비한 덕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큰 실수 없이 무사히 교육봉사를 마칠 수 있었다. 또한, 매일 수업이 끝나면 피드백을 제공해주던 슈퍼바이저 비차오 선생님께서도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할 점보다는 우리 수업에 대한 칭찬과 조언을 많이 제공해주어서 날로 뿌듯함을 더해갈 수 있었다.

크게 수업내용부분과 역할분담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부분이었다. 처음에 이화봉사단이 꾸려지고 과학과목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을 때 과학이 너무 광범위한 과목인데다가 아이들의 연령대도 다양해 수업내용을 조정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팀원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오감'을 주제로 잡게 되자 연령대 구분 없이 센터의 모든 아이들이 배우면 좋고, 또 큰 어려움 없이 재밌게 실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수업 내용이 생각나기 시작했다. 만약 주제를 구체적으로 잡지 못했다면 가르치는 이론도 가지각색이라 아이들도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수업 내용도 일관성 없이 중구난방이었을 것이다.

역할분담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크게만 구성해놓았으나 작년 봉사단에서 간식시간에서조차 손 씻기고 줄 세우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는 역할까지 지정해놓은 것을 보고 우리 팀원들의 역할도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분담을 했다. 막상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직접 역할대로 각자 업무를 수행해보니 역할을 사소한 단위까지 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센터에서의 생활은 아이들도 돌보아야 하고 수업도 해야 하는 등 정말 정신없는 활동의 연속인데다가

20명이나 되는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움직여야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까지의 역할분담이 없었다면 큰 실수가 벌어지거나 당혹스러운 순간이 많이 생겨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전의 약 2달 동안의 준비 기간 동안 행복했다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2번째 해외봉사였던 나에게는 처음 해외봉사를 와본 팀원들의 설렘과 강력한 행복감이 부족했다. 또한 기획팀장을 맡게 되어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나는 캄보디아에서 나의 행복감과 뿌듯함을 찾기 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팀장과 함께 이 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아무도 크게 아프거나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무사히 끝내고 돌아왔다는 점이 정말로 감사하다. 또한 모두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행복감으로 남았고 이것이 내가 이 경험을 다시 그리워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남*진 (국제학부)

가장 불편했던 점 중 하나는 아이들과의 소통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말이 있어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아이들이 나한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해도 내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점점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간다는 것을 느낄 때쯤 아이들과 나 사이에는 불편한 점이 이미 눈 녹듯 사라져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아이들과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덥고 습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날마다 버틸 힘을 주었다.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가진 것이 없는 아이들이 우리와 무언가를 나누려 했다는 점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나누는 데 두려움이 없다는 말처럼 오히려 그 아이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와 나누려 했다.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캄보디아에 다녀온 후 앞으로도 이런 성격의 지속적인 봉사활동 필요성을 느낀다.

송*나 (사회과교육)

사전세미나에 상세히 기획했던 수업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크게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아이들의 수준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서 수정이 필요했지만 충분히 유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차후에 심화된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적절한 주제를 선택했던 것 같다. 아쉬웠던 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관련 전공이 아닌 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던 점이다.

센터에서 아이들과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양호했기 때문에 온전히 봉사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 곳에서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성실하게 활용했으며 수업 외의 시간에도 참여하고, 휴식시간에도 수업 준비를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이번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을 꼽으라고 하면 함께한 봉사단원들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하고 싶다. 긴 준비기간과 캄보디아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동안 힘든 일이 많았지만 단원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결국 힘든 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단원들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봉사단원 간 배려 및 협력은 이렇다 할 것 없이 항상 최고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봉사단원들 간의 역할 분담이 잘 되어있어서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고 주교사일 때는 준비물이나 아이들을 도와줘야한다는 부담감을 덜 수 있어서 수업에 더 노력을 기할 수 있었다.

'이화봉사단' 이라는 타이틀이 큰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화봉사단'에 걸맞게 행동(혹은 활동)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열심히 해야 했고, 잘못한 점이 너무 많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완벽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고 나태해지려고 할 때 자극이 되었다. '내 수업만 잘하면 된다.' 는 생각 보다는 '이화봉사단'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도왔던 것 같다. 다만 마지막 날 즈음에는 '이화봉사단' 보다 나의 힘듦이나 고통에 더 마음이 치우쳐져서 봉사단 내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크메르어를 사전에 공부하였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과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있으리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수업은 거의 언어 30%, 몸짓 70%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이 조금 힘들었을 뿐 수업을 하면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물론 답답한 부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통역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필요한 의사소통은 진행 할 수 있어 학생들과 크게 갈등을 겪은 것은 없었다. 다만 장난이 지나친 아이들을 혼내고 나서 다시 잘 대해주고 싶을 때 말이 통하지 않아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없었던 점이 조금 마음에 남는다. 통역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주셨기 때문에 갈등은 없

었고 오히려 내가 못하는 것(아이들을 타일러주시거나, 칭찬해주시는 것)을 대신 지도해주셔서 덕분에 시너지가 배가 될 수 있었다.

이화봉사단을 통해 단순히 교육봉사의 뿌듯함이 아니라 단원들 간의 협동심,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 등을 촉진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찬 경험이었다.

안*진 (패션디자인학)

처음 해외봉사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였다. 국내에서 다양한 봉사를 해봤지만 국내봉사와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과의 봉사는 어떨지 궁금했고, 다른 환경에서 잘 해낼 수 있을 지 궁금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어떤 주제를 갖고 무슨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은 무엇이 있을지 모든 과정을 우리가 준비했어야 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또한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말로 수업을 하는 것보다 준비해야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평상시에 영어로 수업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막상 캄보디아로 가서 아이들을 보고 나니 그 부담과 걱정이 싹 사라졌다. 정말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들을 보니 마음 편히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과 행동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고 나까지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다. 봉사를 하러가서 오히려 나에게 행복을 전해주었다.

가장 좋았던 것은 봉사하면서 얻은 행복도 있지만 호텔이 너무 좋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든든하게 먹어서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메뉴도 점심은 한식위주로 먹어서 배탈이 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또한 저녁은 현지의 음식을 다양하게 맛 볼 수 있어서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다.

봉사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이들의 웃음을 한동안 잊을 수 없었다. 사소한 것에 밝게 웃고 활기차던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절로 웃음이 났다. 나에게 오히려 좋은 추억을 남겨 준 것 같아 아이들과 이 해외봉사프로그램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나도 도움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오*경 (경제학)

캄보디아 해외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보자면, 거창하지 않았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대학에 가면 한 번 해보고 싶은 활동 중 하나가 해외봉사였고,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기에 늦기 전에 가봐야겠다 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때문에 캄보디아여서 참여하게 된 건 아니다.

봉사를 준비하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을 때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대해 조금은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캄보디아는 나에게 먼 나라였다. 몇 달 동안 봉사를 준비하면서 많이 막막하기도 했다. 캄보디아도 잘 모르는데 그 곳에 사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는 게 당연했다. 한국 아이들은 당연하게 누렸을 것들, 예를 들어 컵 전화기나 현미경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과학 실험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평생 경험해 볼 수 없는 활동이었다. 이렇듯,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캄보디아 아이들의 관점에서 봉사를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다소 어려웠다. 다행히 20명의 단원들이 합심하여 알찬 프로그램들을 기획, 준비하였고 우리는 약간의 걱정과 설렘을 안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도착 다음 날 우리는 캄보디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뚜어슬랭을 방문했다. 캄보디아 봉사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뚜어슬랭 방문을 고를 것이다. 그 곳에서 듣고 본 것들은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특히 그 나라의 교육에 관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했다. 독재 시절에 지식인들을 가둬두고 고문하여 한 세대의 교육자들을 몰살시킨 현장을 보니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더 크게 마음이 아팠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기에 큰 충격으로 와 닿았다. 이 활동 덕분에 나는 봉사에 신중하게 또한 진심을 다해 임하게 되었다. 내가 알려주는 지식, 실험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국 전에는 내가 외국인이라서 아이들이 잘 안 따라주고 싫어하면 어쩌나하는 생각도 있었다. 다행히도 아이들이 잘 호응해주어서 즐겁게 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다른 때보다 짧았지만 나는 매우 보람차게 봉사기간을 보내고 왔다고 확신한다. 내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게 되었다. 더워서 지치고 막바지에는 몸도 안 좋아져서 자칫하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는 뜻깊은 경험들로 가득 찬 봉사활동이었다. 기회만 된다면 다시 한 번 가보고 싶고, 훗날 혼자서라도 캄보디아를 재방문해보고 싶기도 하다. 큰 울림을 주는 경험이었고 이런 엄청난 기회를 제공해주시는 본교와 특히 사회봉사팀 진윤경선생님께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만약 해외봉사를 갈지 말지 고민 중인 벗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지원서를 쓰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림 (체육과학부)

대학에 들어와서 교육 봉사활동은 처음이었다. 캄보디아 교육봉사에 지원하고 합격이 되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참여했었다. 실제로 수업을 할 것들을 실험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연구해보았다.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지, 더 느끼는 점이 많을지를 연구했었다. 나의 경우 물품팀 이었기에 교안에 필요한 물품을 찾고, 부족한 물품을 찾는 등 캄보디아에 가기 전에는 물품에 대한 준비를 했었다. 4일차를 맡게 되어 소마트로프, 소금탑 쌓기, 현미경 관찰에 필요한 물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물품을 가격대비 좋은 것으로 인터넷에서 찾고, 문구점에 가서 찾았다.

캄보디아에 가기 바로 일주일 전 교안을 모두 외우고 실제 실험을 다시 해보았다. 교안을 기록팀이 써주기 때문에 자신이 쓴 대본이 아니고 수업 흐름이 이상하게 되면 다시 고쳐야 했다. 처음 교안을 많이 고쳤던 것 같다. 영어 대본을 다시 고치고 나니 외우기도 쉽고 진행도 매끄러웠던 것 같다. 그렇게 교안을 일주일동안 외우고 캄보디아에 도착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물품 교사로 물품을 매일 밤 찾아서 박스에 넣어 놓고 다음 날 물품을 나르고 수업 시간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고, 제때에 나눠주는 일을 했다. 처음에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무거운 것을 나르고 수업 전에 준비해놓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다. 물품팀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고 다들 열정을 가지고 임해서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힘든 일도 웃으며 진행했던 것 같다. 꼼꼼히 잘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수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매 시간 쉬는 시간 없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다.

주 교사로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생각보다 대본을 말할 시간이 많이 없었다. 아이들이 집중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통역을 하는 시간, 실제 활동을 하는 시간들이 계속 변했기 때문에 조절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다. 아이들이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실험하고 노력했던 활동들을 열정적으로 참여해주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보니 정말 뿌듯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화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착하고 웃음이 많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고 집중도 잘해주었다. 선생님들과 노는 것을 좋아해서 자신이 아는 선생님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다.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도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소통할 수 있었고 서로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저마다 다른 잠재력이 보였다.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글을 잘 쓰는 아이, 이해도가 높은 아이, 의사소통을 잘 하는 아이 등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자신의 꿈을 말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 때에 아이들은 다양한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때 나는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꼭 자신의 꿈을 이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똑똑하고 착한 아이들이 한계에 부딪쳐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보다 슬픈 일이 없을 것 같다. 아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봉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봉사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아이들뿐 만아니라 센터에 있던 직원 분들이다. 그 분들도 우리의 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셨고 신기해하시며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셨다. 처음에 모든 활동을 캄보디아 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생각보다 처음 보는 것들이 많으셨고 이해하지 못하셨다. 그들에게 수업 전에 미리 가서 이해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원 분들은 한국을 좋아하셨고 관심이 많으셨다. 우리들은 서로에게 관심이 많아 질문이 많았고 그에 친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고 대화를 잘 이어가며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말 고생 많았던 진윤경 선생님과 이화 봉사단 팀원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했다. 다들 모든 순간 열정으로 가득했고 팀워크가 잘 이루어졌던 것 같다. 팀원들은 언제나 친절했고 대화가 잘 통했다. 수업을 하는 시간을 포함해 밥을 먹는 시간이나 호텔에서의 시간들은 나에게 더 좋은 추억으로 남겨질 것 같다. 팀원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이야기를 하며, 아이들과 함께 소통했던 시간들이 나에게는 정말 큰 추억이며 이번 학기에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 앞으로도 캄보디아 교육 봉사와 같이 좋은 봉사 프로그램이 있다면 할 것이다. 다양한 봉사를 통해 봉사를 하는 나도, 봉사를 받는 사람들도 크게 성장하고 행복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캄보디아 교육봉사는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다.

이*훈 (교육공학)

나의 봉사에 대한 관심은 고등학교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를 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봉사에 대한 관심은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고 2년 동안 봉사동아리에서 해온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원에서의 봉사를 계기로 소외계층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아이들에게도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막연히 해외봉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찰라 같은 동아리 친구의 추천으로 이화봉사단을 지원하게 되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팀을 정하였다. 처음에는 당연히 기획팀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했지만 촬영과 앨범 제작, 책자 제작은 그동안 동아리에서 해왔던 분야였기 때문에 기록팀을 맡게 되었다. 팀을 구성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 팀별로 캄보디아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를 했다. 기록팀인 우리는 캄보디아의 교육과 역사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이는 후에 캄보디아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현지 봉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캄보디아의 역사, 교육에서 가장 안타깝다고 느껴졌던 면은 크메르루즈 정권 이후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교육자들이 거의 전멸하여 교원의 수가 매우 부족하고 그 자격 또한 논란이 많을 정도로 최종 학력이 중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캄보디아의 학교 상황과도 이어져 수업을 오전반, 오후반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우리 봉사활동 또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에는 거의 매주 월요일 8시 회의를 하였고 조별 수업 차시를 정했다. 5월에 진행한 워크숍에서는 조별 수업의 기획안을 작성하고 수업 활동 피드백을 받았다. 나는 '눈'에 대해 설명하는 4일차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눈의 역할과 구조에 대한 설명과 소마트로프 만들기를 담당하였다. 4일차 수업에는 현미경 관찰과 소금탑 쌓기가 있었는데 소금탑 쌓기가 농도 조절, 소금 녹이기, 물감 섞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활동은 캄보디아에 도착해서도 말썽이었다. 소금 녹이기가 매우 어렵고 소금탑을 쌓는 활동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정리하는 과정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업 전날 갑작스럽게 수업 순서를 바꾸게 되었다. 또한 그 날 저녁 캄보디아어를 거의 못하는 상황에서 어눌한 영어로 수업에 필요한 캄보디아어를 물어보기 위해 경림이와 함께 호텔 프론트에 찾아갔다. 호텔 지배인에게 수업 내용에 필요한 단어를 물어보기 위해 짧은 영어와 몸짓, 발짓 다 섞어가며 이야기 했었고 그렇게 준비해간 캄보디아어는 수업 전 쉬는 시간에 캄보디아 아이들과 이야기 하면서 발음 교정 도움을 받았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아이들이 수업에 열심히 따라와 주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4일차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5일 동안 캄보디아 아이들과 정말 많이 친해졌고 아이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수업 활동을 할 때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러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고 아이들과 함께 둘러 앉

아 활동을 도와주는 것 모두 정말 즐거웠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수업을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싶어서 캄보디아어를 공부했던 것 같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어울려 함께 게임을 하고, 간식을 나눠 먹고, 머리 핀 선물을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아이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정말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캄보디아에서의 8박 9일간의 경험은 캄보디아 아이들의 성장 뿐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시킬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다. 또한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넓은 시야에서 교육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정(교육공학)

개인적으로 이미 국내교육봉사를 다녀왔었기 때문에 처음 지원할 때만해도 비슷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면접 때도 그래서 떨지 않았던 것 같고, 사범대 학생이기도 하고 나름 교육봉사도 많이 해보았었기 때문에 이 활동에 뽑힐 거라는 확신도 있었다. 하지만, 뽑히고 보니, 뽑힌 사람들은 모두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운이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정말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

일단, 다른 단원들과 차별점이라면 국내봉사경험밖에 없으므로 비교를 해보려한다. 오티, 캄보디아에 대한 조사까지만 해도 이번에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친해지지 라는 막연함이 있었다. 하지만, 종강이후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고, 가족들보다도 오래 만난 사이가 되자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국내교육봉사와 다른 점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이었다. 국내 교육봉사는 준비기간을 가지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도 많아 거의 5일의 마지막에 편한 사이가 된다. 하지만, 해외는 최소 일주일간은 같이 생활하게 되어, 활동 기간이 2주라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에게 이 활동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국내교육봉사와 다른 점은 또 하나 있다. 국내교육봉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일하지 않는다. 5명이 자신의 프로그램만 숙지하고 있으면 보조교사는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 전날밤 간단한 설명만을 들으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캄보디아 해외봉사의 경우, 물품팀, 보조교사, 주교사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어야 만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솔직히 준비 과정에서 주교사였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완벽히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로인해, 물품을 담당했던 나로서는 캄보디아에서 주교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서로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담당한 사람도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팀원 한 명이 어떤 이유로든지 방심하게 되면, 다른 팀원은 이제 더 힘들어진다. 서로 배려하면서 꼭 자기가 담당한 부분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뭔가 준비과정, 그리고 국내교육봉사와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개인적인 감상평을 써 보려한다.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다. 다른 팀원들도 다 알겠지만, 프로젝터를 놓고 온다거나 현미경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가진 줄 알고, 팀원들과 찾아다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실수를 할수록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욕으로 들리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었다는 것을 지금 느낀다. 같이 간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현장과 이론은 다르고, 그 차이에서 오는 당황스러움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극대화된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20명이나 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힘들지만, 그것은 누구나 겪는 일이다.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나는 왜 그리 서러웠는지 모르겠다. 물론 심리적인 힘듦이 크게 느껴졌던 것은 체력적인 무리도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름 건강 체질이라고 생각했고, 가서도 7일 동안 크게 병을 앓은 적은 없었지만, 누적되는 피로를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다른 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물품팀 같은 경우, 매일 회의 이후에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피곤함을 풀 수 있는 여유가 그리 많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날까지 마사지를 못 받았는데, 마사지는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을 추천한다. 확실히 마사지를 받고 난 다음 팀원들이 훨씬 상태가 괜찮아보였다. 그리고 마사지나 별 다른 것을 안 했던 나 같은 경우는 봉사라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지고, 이미 실수로 많은 자신감을 상실하면서 한 4일차부터는 머리에 두통이 오기 시작했었다. 팀원들 분위기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녁에는 아예 생각하기가 싫어질 정도의 두통이 왔었다. 실제로 아팠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하지만, 몸 컨디션이 괜찮을 때, 제 정신이 들어오고, 몸 컨디션이 나빴을 때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을 헌신하는 경험이 아니고, 자신을 챙기면서 이 활동을 하라고 다음 분들에게 전하고 싶다. 좋은 몸에 좋은 정신 잊지 않으면 좋겠다.

이*민 (사회학)

고등학생 때 대학생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리스트로 작성한 적이 있었다. 그 목록 중 하나인 해외봉사는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여 꼭 하고 싶던 활동이었다. 막상 대학교에 입학하니, 이전 봉사 경험에서 느낀 교육봉사를 할 때의 어려움과 책임감이 생각나면서 내가 해외 봉사를 가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지원을 망설였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 이화봉사단 캄보디아 교육 봉사에 지원을 하였다.

출국 전 봉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정말 운이 좋게 이화봉사단에 합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색 있는 전공과 능력을 가져서 도움이 되고 있는 봉사단원들과는 다르게 나는 지극히 평범한 전공이었고,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맡은 일에 충실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활동에 임했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물품준비, 교안작성 등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20명의 팀원들이 주체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막막했다. 또한 기존 이화봉사단보다 짧은 준비시간이 주어진 탓에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20명이라는 적지 않은 팀원들과 모두 친해질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걱정은 모두 기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출국 전 준비과정에서 누군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또 다른 팀원이 즉각 그 활동에 적합한 물품을 찾아내는 등 팀원들의 능력에 감탄할 때가 많았다. 이처럼 이화봉사단은 나에게 협력의 힘을 느끼게 해주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아이들에게 완성도 높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주교사였던 화요일 팀의 경우 '모기퇴치 석고방향제'로 갑자기 활동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때가 시험기간이라서 우리 팀원 모두가 바쁜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로서로 일정을 조율하며 시연, 교안작성 등 역할을 나눠서 한 덕에 무사히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캄보디아에 도착하여 첫 수업을 위해 ESS를 방문했을 때, 수업 시작까지 1시간 이상이 남았음에도 많은 아이들이 미리 와서 처음 보는 낯선 외국인인 우리를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주는 것을 보고 울컥하였다. 첫날 아이들의 환대를 받고, ESS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단 5일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선물 같은 5일을 선사해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였던 것 같다. 5일 동안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잠재력과 각기 다른 재능에 놀랄 때가 많았다.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리듬감이 뛰어난 아이, 집중력이 뛰어난 아이,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 순서를 잘 기다리는 아이, 친구를 잘 도와주는 아이 등 아이들 각자의 재능과 잠재력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주교사였던 화요일 전날 밤에는 최대한 아이들에게 수업이 잘 전달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교안을 확인하며 서툴지만 몇 개의 단어라도 최대한 크메르어로 바꿔서 말하고자 준비했던 기억이 난다. 석고방향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간식 시간에 자신의 방향제가 잘 굳고 있는지 호기심어린 얼굴로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확인하던 모습이 고마웠

고, 화요일 수업을 기억하고 2-3일 지나서도 컵을 가졌을 때 컵타를 보여주던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받기도 했다.

현미경 관찰을 위해 전날 나뭇잎을 가져오라고 하였을 때, 모두가 흘려듣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다음날 모두 나뭇잎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아이들의 정성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매 수업 마무리로 준비한 율동은 아이들이 유치해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출국 전엔 솔직히 반신반의한 활동이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해서 기뻤다.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반응에 2개만 준비해갔던 율동을 5개로 늘렸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흔하고, 간단한 율동이었지만 아이들이 율동을 해볼 기회가 없었다는 센터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가슴 아프기도 했다. 또한 캄보디아의 지식인들이 모두 대학살되어서 현재, 과학, 예술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나에게 충격적이었다. 따라서 아이들이 오감을 기반으로 한 과학수업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집중하며 흥미를 보일 때, 뿌듯하고, 기특함과 동시에 이런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도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실뜨기, 가위바위보, 공기놀이, 숫자 순서대로 말하기 등 각종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공기놀이를 할 때 내가 너무 앞서나가면 아이들이 속상해 할까봐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내가 잘할수록 나를 오히려 칭찬해주면서 기뻐했다. 반면에 숫자 순서대로 말하기 놀이에서는 1에서 10까지만 알고 있는 내가 그 이상의 숫자를 말하기를 어려워하자 아이들이 나에게 숫자를 알려주고, 나는 그것을 따라하며 게임에 참여했는데 아이들은 정말 친절히 알려주었고, 나에게 답을 알려준다고 불평하는 아이들도 없었다. 게임의 승패를 떠나서 다 같이 함께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무더운 날씨와 함께 매일 밤 호텔에서도 이어지는 회의와 수업 준비 등으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활동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느낀 적도 많았다. 그러나 수업에 흥미를 느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은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더불어 모든 단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희생하며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 무사히 봉사활동을 잘 마칠 수 있었다. 또한 힘든 상황에서도 버스 안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이동하던 것도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다.

봉사 직전학기였던 3학년 1학기를 보내면서 정신적,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고, 무기력했었다. 그러나 봉사를 갔다 온 뒤,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는 아마도 단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큰 활동을 마쳤다는 성취감과 함께 아이들의 밝은 웃음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받은 덕분일 것이다.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봉사에 '적합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든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마음가짐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준비과정부터 캄보디아에서 활동 내내 세심하게 단원들을 챙겨주신 진윤경 선생님과 캄보디아에서 항상 함께 해주신 교수님, 매일매일 더 나은 수업을 위해 조언해주시고 많은 도움 주신 ESS 센터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봉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성아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낯선 외국인인 우리를 항상 밝은 웃음으로 맞아준 아이들에게 고맙고, 다시 꼭 만나고 싶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내내 같이 고생한 우

리 팀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임*원 (특수교육학)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가 언니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봉사하기까지 많은 깨달음을 얻고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원봉사 경험을 생각하며 캄보디아 해외봉사를 지원했지만, 면접과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회의까지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었다. 기획팀 소속으로 첫 회의를 마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순간조차 캄보디아 봉사단원이 되었음을 실감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팀장언니들과 작년 봉사단원 언니들의 조언에 따라 다양한 주제들을 던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다시금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캄보디아의 현재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출국까지 일주일의 시간밖에 마련되지 않았지만, 일주일 동안 봉사단원이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목을 다지고 가장 꼼꼼히 준비할 수 있었던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같이 밥을 먹고 대본을 외우고 수업을 미리 준비해보는 수업시연의 과정까지 거치며, 캄보디아에서 수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들을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즉흥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나에게 완벽히 대본을 암기하고 정확한 준비물을 미리 결정하는 과정은 다소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수업시연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소금물의 농도를 이용하여 소금탑을 쌓는 실험에서 얼마나 정확한 수치의 소금이 필요한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스포이드의 사용법을 가르쳐주어야 하는지 등 빈틈이 드러나며 이를 보완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아이들 없이 진행한 수업시연과 달리 캄보디아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너무 떨리고 아이들 집중시키는 것이 힘들었다. 주 4일 보조교사를 하던 내가 주교사가 되니 아이들 개개인에게 신경써주지 못하는 점이 미안했고 뒤처지는 아이들에게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기도, 빨리 습득해서 이미 끝낸 아이들에게 집중하기도 두 갈래에서 고민되는 상황들이 주어져서 주교사라는 책임감을 다시금 느끼었다. 캄보디아에서 봉사단원들의 업무와 역할은 모두 정해져있었고 철저히 준비했기에 다들 자신의 직책에 최선을 다했다. 다만 캄보디아에서 주 교사가 되어보니 수업을 진행하는 역할이 주교사 일지라도, 아이들이 집중하도록 지시하는 보조교사의 도움이 없고 물품교사의 준비물 지원이 없었더라면 수업 진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뿐만 아니라 봉사단원 단체의 일원으로서 봉사를 준비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였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에 앞서 나 스스로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다음번에는 단기가 아닌 장기봉사를 도전하고 전공을 살려서 도움을 주고 받고 싶다. 언니들 선생님 모두 감사하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정*은 (행정학)

해외 봉사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만을 가지고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았다. 어쩌면 능력은 부족했지만, 운이 좋게도 붙었다. 운이었을지 몰랐겠지만 감사하게도 정말 좋은 팀원들과 선생님들을 만나 뜻깊은 봉사를 하게 되어 이번 여름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 봉사를 하기 전에, 저에게는 몇 가지 걱정스런 감정이 생겼었다.

첫째로, 두려움이 조금 있었다. 노동을 통해서나, 기부를 통한 봉사는 해 본 경험이 많았으나, 실질적인 교육 봉사를 해 본 경험이 적었고, 해외에서의 봉사도 처음이었기에 저의 열정을 가지고서만 봉사에 대비하기에는 막연한 기분이 많이 들었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봉사에 앞서 봉사를 위한 준비과정에 있어서 그런 두려움의 감정은 없어졌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수업준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 친구들과 함께 준비해나가기 때문에 준비가 어렵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제일 솔선수범하여 활동을 진행하는 리더와 부리더 덕분에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걱정과 두려움을 가졌던 처음과는 달리, 혼자가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면서 일을 진행하였기에 무사히 봉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둘째로, 캄보디아에 도착하기 전의 준비기간이 이전의 해외 봉사들보다는 짧아서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봉사가 정말 힘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이번이 저의 마지막 교육봉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본 순간 저의 생각이 오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을 보자마자 '나는 여기에 다시 오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너무 예뻤고 선생님들을 잘 따랐다. 수업을 맡아 하는 주교사를 하고 난 뒤에 주교사를 보조하며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보조교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고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주니까 정말 행복했다. 아이들과 함께 놀며 봉사단원들과 수업준비를 하니까 봉사 준비기간에 힘들었던 기억들은 다 잊혀졌다.

시작 전에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 처음 해보는 교육봉사와 해외봉사이기에 두려움도 조금은 있었지만, 이화봉사단을 통해 캄보디아를 다녀와 보니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 이번 봉사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나누어주려고 간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고 돌아온 경험이 되었다. 이전에는 단순히 봉사자들끼리만 하는 봉사를 주로 해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요소가 아무래도 적었다. 하지만 이번 봉사에서는 특히나 며칠을 다녀오는 봉사이기 때문에 다른 봉사자들과의 상호작용도 많았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많아 뿌듯하고 행복한 봉사활동이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무언가를 만들고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저에게 웃음 지어주고 같은 시간에 같은 감정을 공유해주었다는 점이 좋았다. 아이들이 저를 한국말로 '선생님, 선생님'하며 부르고,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자랑하고, 놀고 싶어 데리고 가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고, 잊었던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이들에게 잠시 왔다가 또 떠나가는 선생님이 되어서 정말 미안하고 이렇게 빨리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도 슬펐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들에게는 그 상황이 익숙한 듯 보여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아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지 못해 미안했지만, 우리와 함께했던 5일이 즐거웠다는 마음을 간직해주었으면 좋겠다.

조*민 (식품영양학)

학교를 처음 입학한 1학년 때부터 이화봉사단이라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갓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다양한 대외 활동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해외 봉사를 진행하는 이화봉사단에 당연히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당시 새내기였던 나는 스스로에게 있어 봉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그 의미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정말 관심만 있었을 뿐이지 행동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짧다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대학교 2년의 생활 동안 나는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웠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자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소외되는 자의 처지를 진정한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을 돕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점이 내가 이번 해에 망설임 없이 이화봉사단에 지원할 수 있었던 계기이지 않을까싶다.

이화봉사단에 합격하고 캄보디아로 출발하기 직전까지 20명의 학생들은 프로그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완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봉사교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다 만드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냐고 묻는다면 사실 아니다. 거의 아무 것도 모른 채로, 과학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는 봉사활동이라는 정보만 알고 지원했었다. 그래서 처음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나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창의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창작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개인 활동이 아닌 단체 활동의 시너지를 무시할 수 없었는지 20명 누구하나 빠짐없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였고 모든 의견 하나하나가 전체 봉사활동의 실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나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나 자신을 극복한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에서 사용할 활동 목록을 생각해오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때 최대한 많이 생각해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DNA 추출 실험이나 감자전분 실험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생각해 갔었다. 또한 내가 담당한 요일의 수업 내용을 만들 때 구체적이고 탄탄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었고, 다른 요일 수업에서 보완할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문했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이는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주체적인 활동을 해볼 수 있었던 기회와 경험이 앞으로의 내가 비슷한 활동, 혹은 전혀 다른 일을 해나가는 데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것이 이화봉사단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즐겁기도 했고, 캄보디아의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의 상황을 여실히 체험하면서 마음 아프기도 했다.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이화봉사단 활동은 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했던 20인의 이화봉사단 단원들, 사회봉사센터 진윤경선생님, 힘든 환경에서도 같이 있어주신 교수님, ESS의 직원 분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해맑았던 아이들까지, 모두에게 감사한 시간이었다.

조*나 (한국음악)

최종 결과 발표 후 오티와 함께 팀을 정하고 기획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을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했던 것 같다. 운이 좋게 기획팀에 들어가게 되어 프로그램을 함께 생각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함께 체험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 활동들을 생각해보고 팀원들의 의견도 하나 둘씩 모이다 보니 전체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또 기획팀에서 고안해낸 프로그램들로 센터에서 봉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뿌듯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평소 생각하고 뭔가를 기획하는 것에 대한 흥미가 높아져 기획 관련분야에 관심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고 종강 후에 일주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회봉사센터에서 실제 수업처럼 진행해보고 여러 번의 시연을 통해서 부족한 점들을 채우고 필요한 준비물이나 재료를 챙기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평소에도 암기가 힘들어 오랜 시간을 두고 외워야하는 타입 인데 특히나 영어교안이고 또 센터에 가서 아이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니, 단원들앞에서 시연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아무리 외워도 앞에서 발표하려니 까먹고 말하지 못하는 나를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원들을 암기가 거의 완벽한 상태였지만 나는 완벽히 외우지 못해 팀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을 많이 느꼈다. 물론 수업당일까지는 모두 숙지하고 암기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그때 당시에는 많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다. 또 준비과정에서 리더 언니들이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캄보디아어를 쪽지시험형식으로 진행했던 게 실제 수업에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아이들이 영어는 못 알아들으니 어눌하긴 하지만 캄보디어로 말할 때는 확실히 집중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캄보디아 센터에 가서는 걱정했던 것 보다는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수업이 수월했지만 통역해주시는 분이 준비를 많이 해오시지 않아 바로바로 아이들에게 수업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맥이 끊기는 느낌을 받으며 아이들도 그만큼 집중이 깨지는 모습을 보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또 보조교사로 참여하고 중간 중간 아이들과 쉬는 시간에 몸으로 놀아주며 친해지는 시간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언어가 통하지 않다보니 바디랭귀지를 사용하고 간단한 쎄쎄쎄. 공기놀이처럼 우리나라에도 있는 놀이들이 비슷한 형태나 똑같이 존재해서 그런 놀이들을 함께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친해질 수 있었고, 친해지다 보니 수업을 할 때 조금이라도 따라 와주려고 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3층은 에어컨을 계속 틀어주셔서 3층에 있던 며칠은 굉장히 쾌적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도울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항상 다같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던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본 수업은 어땠는지 객관적으로 듣는 것이 개선해야할 점을 빨리 캐치해서 피드백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관광을 하는 날에는 단원들은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다고 했으나 나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다. 워낙에 체력이 좋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다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장, 왕궁을 구경하고 비행기 타기 전까지 사진을 찍고 주변경관을 구경했던 것 같다.

이렇게 같은 나이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교육봉사를 다녀오고 모든 교육일정을 저희가 직접 짜며 진행된 과정이 생각할수록 꿈 같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옆에서 많이 보고 배웠으니 다음번에는 이번의 실수를 거름삼아 더욱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진*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중학생 때 필수 봉사시간 60시간도 다 채우지 못했고, 고등학생 때도 역시나 학교에서 주던 기본 봉사시간만 챙기던 나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 의외로 영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봉사를 꾸준히 하게 되었다. 1학년 여름방학 국내이화봉사단부터 시작해 사회봉사 1,2,3까지 수강완료하고는 정말 더 이상 봉사를 할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해외봉사를 하게 될 줄이야. 항상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삶은 진행되곤 한다. 지금까지 봉사를 했던 이유는 항상 같았다. 내가 고등학생 때 교육봉사자로부터 받은 도움이 컸다고 느꼈고, 초, 고등학생 교육봉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가보지 못했던 기관에서 평소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았다. 그런 면에서 해외봉사에서는 짧은 기간인 5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필요한 걸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뽑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은 했는데 해외봉사 OT에서 역시나 그 질문을 던져주셨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첫날 미리 캄보디아 역사에 대해 발표를 듣고 가긴 했지만, 뚜어슬랭에서 캄보디아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었다. 공산주의 이름 아래서 2만 여명의 지식인이 학살된 곳이었는데, 캄보디아의 현재를 이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 캄보디아는 당장 선생님 수가 충분하지 않았고 사실 많이 부족해 교육이 많이 필요한 곳이었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비슷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는데 교육으로 결과가 많이 달라졌구나 느낄 수 있었다.

이전까지는 내가 하는 활동이 단기 봉사라 단발적이고 남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고민이 있었는데 교육적 체험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준비물교사, 주교사, 보조교사를 번갈아 가며 비슷한 횟수로 맡았다. 수업을 진행했던 주교사보다는 준비물교사, 보조교사를 했던 경험이 더 인상 깊었다. 특히, 석고 방향제 수업이 가장 그랬다. 아이들 석고방향제가 잘 굳지 않아서 준비물 교사였던 나는 간식시간 동안 열심히 부채질 했지만 결국 다 굳지 못해서 미완성의 석고방향제를 줄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하얀 석고방향제를 꾸미는 활동도 할 수 없었는데, 집에 가서 꾸미라고 말하자 집에 꾸밀 색연필이나 사인펜 같은 도구가 없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아이들 특성, 성격은 한국과 비슷했다. 수줍어하는 아이, 말썽꾸러기, 집중하지 않고 떠드는 아이,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아이들. 당연한 얘기지만 봉사활동에는 내 예상과 비슷한 부분도 있었고 다른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다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들이다.

나는 커뮤니케이션미디어를 전공해서 내 진로, 학과는 어쩌면 봉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지만 항상 봉사에는 계속 봉사를 하게 했던 배움, 경험이 있었다. 대학입학 전까지는 경기도 내가 사는 조그만 시, 이화에 들어와서 겨우 서울로 넓혀졌지만 여전히 좁은 곳을 마주하고 살아간다. 해외는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또 얼마나 낯설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투

성이인지. 내가 마주치는 한정적인 세상에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된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항상 겸손하게 되고 봉사를 하는 환경, 과정, 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임을 배운다. 지금까지 해오는 팀플은 어쩌면 점수라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그 안에서도 경쟁을 하기 마련이었다. 20명 넘는 사람들이 서로의 순전한 즐거움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함께 해 움직이는 것도 역시 좋은 경험이었다. 봉사 이전에는 내가 왜 가지하는 고민과 가서 주어진 역할을 잘 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일을 준비했다. 캄보디아를 다녀 온지 벌써 2주 이상 지난 지금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캄보디아에 다녀온 일부분으로 내가 보고, 알고, 느낀 것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경험을 계속해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나의 역할인 것 같다.